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 (문성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613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3월 31일

발 의 자: 문성호, 고광민, 김규남,
김용호,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혜영,
남궁역, 윤영희, 최민규,
최호정 의원(13명)

1. 주문

-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서울특별시를 포함, 모든 지자체가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단순히 가톨릭 종교 세계관에서의 행사가 아니라 세계만방에 대한민국의 저력을 뽐낼 좋은 기회로 만들 것을 건의함

2. 제안이유

- 2027년에 개최될 제41차 가톨릭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통칭 WYD)의 개최지로 대한민국 서울을 바티칸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직접 선포하였음
- 현재 특정 종교의 행사라는 점 때문에 반발 혹은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이는 세계 각지의 청년들이 대거 참여할 뿐만 아니라 프란치스코 교황도 직접 참여하는 세계적인 행사이므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부 각 기관은 물론, 지자체 역시 힘을 모아야 함
- 또한 WYD를 가톨릭 종교 세계관에서만의 행사가 아니라, 세계만방에 대한민국이 이룩한 역사적 우수함과 선조들로부터 내려온 문화 및 유산의 인류 학술적 고가치에 대해 뽐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야 함

- 이에 2027 WYD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서울특별시장을 포함한 지자체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고 지원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담은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을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함

3. 이송처

- 대한민국 국회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

두 번의 세계적인 전쟁이 끝나고 그 상처가 점점 아물어가는 와중에 세계는 다시 냉전이라는 또 다른 전쟁의 두려움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바티칸의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세계 속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하여 예수가 수난받고 죽은 지 1950년이 되는 해인 1983년부터 1984년까지, 희년을 선포하며 젊은이들을 모았습니다.

이듬해인 1985년, UN은 국제 젊은이의 해(International Year of Youth)를 선포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교황은 세계 속 젊은이들을 로마 바티칸으로 직접 초대하여 함께 손은 맞잡고 희망찬 내일을 서로 북돋아 주었습니다. 이 초대에 무려 30만 명의 청년이 응했다고 전해집니다. 교황은 이러한 청년들의 응답에 대해 '젊은이들은 서로 만나고 싶어하고, 그들의 경험을 나누고 싶어하고, 믿음의 말씀을 듣고자 하며, 미래를 바라보려 하며, 그들의 약속을 새롭게 그리고 굳게 하고자 하는 열의를 느끼고 있다.'라 평하며 1985년, 세계 청년의 날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1987년,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첫 번째 세계청년대회가 개최된 것을 시작으로 가장 최근인 지난 2023년에는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코로나19도 극복하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제 그 세계적인 청년의 날을 우리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역대 개최지 중 유일하게 그리스도교가 국교가 아닌 국가라는 점, 휴전국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희망과 용기를 위해 세계청년대회를 개최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정부 각 기관은 물론 개최지인 서울특별시를 필두로 모든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비록 세계청년대회의 개최 주관은 바티칸의 가톨릭 교황청이고 참석하는 이들은 가톨릭 신자 청년들입니다만, 우리는 이 행사를 단순히 가톨릭 종교 세계관에서만 행사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단군으로부터 내려오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종묘사직을 이어가는 우리 고유의 믿음은 물론, 천 년이 넘도록 한반도 각지에서 자비를 가르쳐 온 불교, 피로 증거하며 신앙을 뿌리내린 가톨릭, 일제와 북괴의 총칼에서도 굴하지 않은 개신교 등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한 믿음을 넘어 문화와 사회 전반적으로 국민 가슴속에 박힌 진정한 자유에 대한 상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휴전 중이라 섬나라나 다름없는 고립된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세계만방에 우리의 우수한 문화와 유산을 알릴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서울특별시 내 유구한 세월 속 고요함과 자비함을 간직해온 전통 사찰들은 지난 스카우트잰버리 대원들에게 많은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이렇듯 단순한 특정 종교에서의 행사가 아닌, 세계만방에 대한민국이 이룩한 역사적 우수함과 선조들로부터 내려온 문화와 유산의 인류 학술적 고 가치에 대해 뽐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2024년 11월 7일, 김상훈 국회의원 등 59인이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하여 제418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되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2027년이 벌써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은 2027년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세계만방에 대한민국의 우수함에 대해 다시 한 번 상기시키기는 기회를 만들어야 함을 근거로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 대회 지원 특별법안」을 하루 빨리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2025. 3. 31.

서울특별시의회의의원 일동